

데스크 시각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들



윤 영 기 사회부장

지난해 5·18 기념식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1980년 5월18일에 태어난 유가족 김소형(여·37) 씨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내려 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순순건으로 눈물을 찍어 냈다. 편지 읽기를 마친 그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꼭 껴안고 위로했다. 지금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런 기억 방식은 문 대통령 재임기에만 유효할지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기억법은 바뀌기 때문이다. 집권자에 따라 '국가가 기념하는 5월'이 부침을 겪어 온 것은 우리가 이미 37년 동안 경험해 온 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다. 30여 년 세월이 흘러 기억 밖으로 밀려나 있던 인물들을 소환한 것이 그것이다. 박관현·표정두·조성만·백래전 등 네 명의 민주 열사

들. 사실 대통령의 이러한 이름 부르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제20평해전 10주년 기념식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의 호명은 광주의 폐부를 건드린다. 이들은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분들이며 굳이 옥쇄(玉碎: 부서져 옥이 된다는 뜻으로 명예나 충절을 위하여 깨끗이 죽음을 이르는 말)를 자청해 5월의 진실을 알린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동안 '민주 열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이들을 기억했다. 박관현 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름들이 그토록 회미해졌던 이유다. 문 대통령은 그 이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들려주면서 광주의 망각을 질책했던 건 아닐까. 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광주가 기억하고 불러주어야 할 이름들이었다.

인간의 고통과 교감하자

5·18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38년이 됐다. 그동안 우리는 5월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민주·인권·평화'라는 5월 정신을 씩 티운 '인간의 고통'과 진실로 교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의미 찾기와 자리매김에 매몰된 탓에 희생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소통할 기회는 방기되

었다. 그러나 '5월의 철학자' 김상봉 교수가 저서 '철학의 현장'에서 강조한 말은 뼈아프다. "언제 우리는 5·18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5·18의 고통에 참여하는 때입니다. 5·18이라는 사건 자체나 그것이 추구한 이념이 아니라 그에 참여한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5월27일, 최후 항전지인 도청 본관에는 죽음 앞에서 고뇌했고 절규했던 인간들이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나마, 부도립게도 그날 절명한 이들의 최후를 살필 수 있다.

"계엄군을 쏘려고 창가로 다가갔다. 두 사람이 쏘지 말라고 만류했다. 총을 쾩개쳐 버리고 있자니 엔지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때까지 남아 있었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이 되니 두렵고 온갖 생각이 다 났다. 제 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부모님이었다. 부모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야, 인마. 얼른 일어나야.' 몸을 만지니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나하고 장난치던 애가 죽으니까 정말 그때서야 죽음이라는 게 실감 났다."(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90년)

5·18을 이해하는 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죽음을 예감한 마지막 순간 부

모님이 보고 싶다는 간절함, 나를 향해 받아쇠를 당길 적을 보고도 총을 쏠 수 없었던 한 인간의 눈물, 이제 5월의 참모습 아닐까. 5월의 전위(前衛)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렀던 훌륭한 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이들은 두려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우리의 이웃이라고 믿는다.

5월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5월이다. 광주시 북구 민주로 200번지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월 당시 희생자를 포함한 유가족 797명이 잠들어 있다. 유족들이 고인을 추억하며 묘비 뒷면에 새겨 놓은 절절한 글을 더듬다 보면 여러 순수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다. 차마 유족들이 글을 써 놓지 못한 묘비도 있으며, 그 묘비 아래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야 했던,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쳤던 이들이 누워 있다.

이번 38주년 5·18 기념식을 계기로 5월 묘역을 찾는 참배객들은 혹시 그날의 희생자와 문득 교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즉시 5·18추모관으로 발길을 돌려 '영원의 벽'에 그의 이름을 적어 주면 좋겠다. 37년 동안 가족 외에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 말이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히포크라테스의 파업



심 상 돈 동아병원 원장

의과대학 졸업식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했다. 그 엄숙한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선서를 요약하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인술' '봉사' 그리고 나의 명예를 건 '자유의지'에 의한 서약이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또다시 의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와 의사 단체 대표들이 협상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그 핵심은 법으로 인정한 비급여(법정 비급여 또는 인정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보험 지원을 못했던 의료 행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병원은 낮은 의료수

가로 인한 적자 경영을 벗어나기 위해 법정 비급여 의료 행위에 목을 매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법정 비급여의 급여화는 가격의 하락과 정부의 간섭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법정 비급여 의료행위인 MRI 검사는 지금 보다 5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병원의 수입이 줄고 경영은 어려워진다. 공여지책으로 다른 수단을 만들어 수입을 어느 정도 보전한다고 한다.

법정 비급여 의료 행위의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급여화하면서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병원 경영의 적자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절대로 '안전'과 공존할 수 없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도 결국 병원의 의료진만 책임을 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한번 쓰고 남은 버려야할 약을 경제성을 이유로 국가가 암묵적으로 허락해 나눠서 사용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애써 모른 채하고 있다.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약은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소포장으로 만들지 않는다. 수요가 적어 경

제적인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번 쓰고 나머지는 버린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전해진다. 물론 그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유는 환자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영유아이기 때문이다.

최근 30년간 세계 곳곳에서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 왜곡된 의료제도의 도입에 항의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100일 넘게 지속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의사 파업 36건을 원인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수와 관련한 사안이 48%, 보건의료 예산 삭감이나 노후 시설 문제가 22%, 장시간의 근무가 16%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의사 파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연구도 있다. '2008년 영국 의사 파업과 사망률'이라는 논문인데, 1976년부터 2003년 사이 9일에서 17주 정도 진행됐던 5건의 의사 파업 중 어느 기간에도 환자 사망률이 감소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파업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의해 법적으로 막혀 있다. 이슬은 인술(仁術)이라고 한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다. '인술'은 '환자의 안전'이며,

이는 '의료진의 안전'을 전제로 한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의사들은 인술이란 용어가 그리 달갑지 않다. 인술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싫은 것은 아니라 희생과 봉사정신 찬미한 인술을 어떤 상황에서도 '강요'받는 게 싫다.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행위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이유와는 상관없이 '인술을 외면한 의사'란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역시 그 기억이 좋지 않다. 의사 집단을 비난할 때만,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분명 부조리한 의료 제도에 대해, 환자 의사와 모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올렸는데 '인술'과 '히포크라테스'를 끌어들었고 '밥그릇 쟁기'로 의사와 의사 단체를 비난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수의 의견을 틀어막는 것이다. 의사들의 의견을 틀어막기 위해 '인술'과 '히포크라테스'를 이용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격정된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한 의료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기 고

광주역 일원에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자



김 형 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지금 광주역 일대는 한국형 고속철도(KTX) 미운행의 여파로 상권이 침체 상태에 놓여있다.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도 좁혀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 광주역 KTX 운영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경제적 난관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는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가 대안적 교통대책의 전부가 되고 있다.

호남선의 철도 노선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송정역 지역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1914년 호남선 전 구간 개통 이후 한동안 광주 사람들은 15km나 떨어진 송정리역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 또는 인력차·역마차를 타고 가는 불편을 겪었다. 도청 소재지 광주가 철도 교통의 혜택을 제외되자, 송

정리~광주간의 철도 부설이 추진되어 1922년 완공되었고 광주~담양선과 광주~여수선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개설되었다.

자동차가 도시 교통의 주류로 등장하기 전에는 도심 지역 열차 선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의 급증과 도시 팽창에 따라 건물과 도로가 확대되면서 교통 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큰 장애물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최초 지금의 동부소방서 자리에 있던 광주역이 당시의 외곽 지역인 중흥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수십 년 숙원 사업이던 광주역~효천역 구간의 도심 선로가 이설되고 폐선 부지에는 푸른길공원이 조성되었다. 오늘날 대도시 도심권 열차 선로는 생활 구역에 차단하여 도시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제 광주역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역의 존폐와 활용 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바람직한 대안의 도출을 위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총의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광주와 송정리를 잇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일제 강점 시기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광주 원도심과 송정역 사이에 지하철, 간선버스, 심야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연계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면 접근성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송정역의 협소한 주차장과 승객 환승장 등의 확충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북구민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광주역을 살려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광주역은 현재 상태의 유지보다는 좀 더 도시 활용도가 높은 시설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도시의 균형 발전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 복개된 용봉천 위에 자리하여 비좁고 낡은 공간으로 사무실이 곳곳에 분산되어있는 북구청 및 북구보건소와 북부경찰서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원스톱 행정을 도모하고, 광주역 사문화관과 교통문화체험관, 북구민회관 등의 공공 문화 시설을 가미한 행정 문화 복합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자연 조경물로 옛 경양방죽을 축소한 형태의 '신 경양방죽 복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선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6만여 평 규모의 경양방죽은 광주시민의 상징적 공간이자 젓줄이었지만, 지난 세기에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라는 개발의 광풍을 이기지 못하고 매립되고 말았다. 지금도 연로한 시민들은 도심 속 자연 휴식의 요람이던 경양방죽이 사라진 것을 두고 못내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담한 규모로 축소해 경양방죽을 복원한다면, 새로운 도심권의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풍요 어린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유명한 명리학자는 광주 지역의 형국이 불(火)에 해당하여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물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경양방죽이 바로 그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옥한 정취와 풍광을 갖춘 경양방죽이 복원되면 시민들의 심성을 한결 유연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게 길러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이제 세계의 도시 개발 추세는 새로운 계획 지구의 무차별적인 확장보다는 기존의 시가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광주역 일원의 미래 청사진도 거시적으로 원도심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탄생과 성장의 시대를 거쳐 쇠퇴의 국면에 접어든 특정한 구역을 시민 다수의 뜻과 지혜를 모아 쾌적하고 멋스럽게 되살려 내려는 결집된 노력의 요청되는 중대한 시점인 것이다.

社 說

본선 후보 속속 확정...평화당 약진 가능할까

6·13 지방선거 후보들의 본선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체제에 맞서 야당인 민주평화당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확정하는 등 양당 경쟁 구도 구축에 나선 것이다. 평화당은 최근 영입한 민영섭 최고위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애초 전남지사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예상됐던 박지원 의원의 출마가 불발되면서 민 최고위원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민 후보는 서울시의회 의원,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정동영 대선 후보 공보특보 등을 지냈다.

평화당 광주시장 후보로는 '5·18 사형수'로 불리는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평화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김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경력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5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총선 당시 자신은 전 국가 국회의원 15번을, 김 전 의원에겐 앞 번호인 14번을 주어 국회에 입문

시킨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했으며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선에 올랐다. 이에 따라 광역 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텃밭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평화당 간 자존심을 건 일전이 예상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현역 구청장이 민주당계 소속으로 출마한 동구청장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평화당의 김성환 현 구청장과 민주당의 임택 시의원이 맞붙게 되는데, 역대 '호남정치 1번지' 역할을 해 온 동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평화당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야당이 평화당이 인물나 속에서도 속속 후보들을 확정함으로써 자칫 '백 빼진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평화당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강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시 5월, 힘들게 공개하는 38년 만의 미투

5·18 38주년을 앞두고 내일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5·18기념문화센터가 주최하는 '5·18영창특별전'이다. 그해 5월 상무대 영창과 법정부에서 광주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진실을 스톤세 개의 방에 나눠 보여 준다. 그 중 '진실의 방'에는 38년 동안 혼자만 간직했던 김선옥(60) 씨의 이야기가 '무너진 스톤세 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공개된다. 80년 5월 전남대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던 그는 5월 22일 책을 사러 급남로에 나갔다가 전남도청에 합류했다.

김 씨는 그해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대에 붙잡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간다. 조사가 끝날 무렵인 9월 4일, 김 씨는 계장으로 불리던 소령 계급장을 단 수사관에게 끌려나가 여관에서 성

폭행을 당했다. 이미 고문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돼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김 씨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는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뒀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의압으로 퇴직해야 했다. 김 씨는 한때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김 씨의 사연이 담긴 방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 쪽 그림 위로 노란 나비들이 날아오른다. 피해 여성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세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임종수 5·18기념문화센터소장은 "피해 여성의 동의를 얻어 고통스러운 사연을 너무 아프고 힘들게 공개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제 그날 성폭행을 했던 수사관을 찾아내 늦게나마 단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無 等 鼓

한국어의 70%는 한자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한자를 모르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한자 교육은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한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랜 한글 전용 교육으로 '한자 문맹' 세대까지 등장했다. 한자 교육은 필수 과목이던 한문이 6차 교육과정(1992~1997년) 때 선택 과목이 되고, 7차 교육과정(1998~2007년)에선 아예 제2외국어로 포함되면서 크게 약화했다. 특히

"배이징대 학생은 스스로 분발해 홍극지(鴻鵠之志)를 세워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홍호지(鴻浩之志)라고 엉뚱하게 말하고 받았다. 홍극은 '큰 기러기와 고니'라는 뜻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제비나 참새가 벗겨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라는 고사가 실린 이후 '포부가 원대한 사람'이란 뜻으로 쓰여 왔다. 누리꾼들이 린 총장을 백자교장(白字校長:글자를 모르는 총장)이라고 비웃자, 이튿날 그

한자 문맹

는 중학교 때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실수를 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했다. 중국 최고 명문대 총장의 망신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2년간 준비해 온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정책을 올 초에 슬쩍 폐기했다.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많이 쓰이는 한자 300자에 한해 음을 풀어 주는 한자 표기를 추진해 오다 사교육 우려를 이유로 포기한 것이다. 린 총장도 어쩌면 피해자일지 모른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서울대 총장도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시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